

담양군, '담양형 딸기 스마트팜' 개발 위한 업무협약 체결

광주과학기술원-한국바이오헬스케어기술연구조합 신품종 시범재배·AI선도기술 스마트팜 기술 개발 협력

담양군은 지난 27일 광주과학기술원(총장 김기선), 한국바이오헬스케어기술연구조합(회장 조성희)과 '담양형 인공지능 스마트팜'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담양육성 신품종 딸기의 시험 재배 및 인공지능(AI) 선도기술 스마트팜 기술 개발과 국내외 보급을 위한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해 이뤄졌다.

업무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인공지능 스마트팜 공동연구 및 기술보급 협력 ▲담양 육성 딸기의 해외 보급을 위한 품종특성 및 재배기술 정보 지원 ▲AI 스마트팜, 딸기 신품종 및 재배기술 개발 분야 정부 지원사업 공동 참

여 ▲빅데이터 기반 딸기 신품종 재배 매뉴얼 제작 협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담양군은 지난 2010년 딸기로는 국내 최초로 지리적표시 등록(제70호)을 완료했으며 자체 개발한 '죽향'과 '메리퀸' 품종은 당도·경도·과형·향 모두 뛰어나 세계적으로도 각광받고 있다.

지난 10월 자치단체 최초로 미국 로봇 기반 농업 기업인 조르디사와 로봇 전자동화 온실

실증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통상실시 계약을 체결해 미국 공략의 발판을 열었다.

또한 최첨단 기술을 농산물 생산에 적용해 생산성을 높이는 '에그테크(AgTech=Agriculture+Technology)' 활용 첨단농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국비와 군비 300억 원을 투입하는 신규 사업을 추진하며 미래 농업을 선도하기 위한 준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잘사는 부자농촌 건설을 위한 담양형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해 담양을 청년이 찾아오는 첨단농업의 중심도시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기자

업무협약 체결(왼쪽부터 지스트 김기선 총장, 이병노 담양군수, 한국바이오헬스케어기술연구조합 박진성 부회장)

5군 - 한국바이오헬스케어기술연구조합 업무협약

(화) 11:00 | 장소: 지스트 행정동 2층 대회의실



나주시, 내년부터 빈집 정비 보조금 최대 300만원 상향 지원

현실 여건에 맞춘 보조금 상향...소유자 비용 부담 절감 및 경관개선, 귀농·귀촌인 보금자리로 연계·활용



나주시는 내년부터 '빈집' 정비 보조금을 기존 150만원에서 철거 면적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대폭 상향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빈집 정비사업 보조금 상향은 민선 8기

공약으로 소유주의 자발적인 빈집 정비·철거를 통한 경관 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빈집을 귀농·귀촌인을 위한 보금자리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 또는 건축물로 소유자가 빈집 정비를 요청한 경우도 포함된다.

보조금은 건축물 면적 대비(㎡당 35000원) 차등 지급하며 80㎡이상일 경우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빈집 매매·임대 거래를 희망하는 소유자 동의 절차를 거쳐 LX공사 빈집정보시스템(공가람)에 등록, 예비 귀농·귀촌인이 빈집을 매입해 이주·정착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에 힘쓰고 있다.

여기에 또 다른 민선 8기 공약사업인 '농촌활력빈집재생사업'을 추진해 마을에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하고 귀농·귀촌인을 위한 임시 주거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빈집 소유자와 마을협의회·사회단체 등이 5년 간 주택무상사용 승낙·관리 협약을 체결하면 개소 당 리모델링 공사비를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나주=송준표기자

곡성군, 운곡특화농공단지 조성 위한 '첫 삽' 떴다

식료품 제조업 20개소...전기·전자 부품 제조업 5개소 분양 추진

곡성군이 27일 오후 곡성군 오산면 운곡리 현장에서 운곡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기공식을 개최했다.

곡성군 오산호타악놀이팀의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내빈소개, 개식 선언 및 국민의례, 경과보고, 기념사, 축사, 시삽 순으로 진행됐다.

이상철 곡성군수, 윤영규 곡성군의회 의장, 진호건 전라남도의회 의원,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운곡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성공을 기원했다.

운곡특화농공단지는 2013년 9월 특화농공단지 예정지를 확정하고 2016년 7월 지정 고

시했다. 이후 사업 추진방식을 민간개발에서 공영개발로 전환하고 2020년 10월 개발계획 변경 고시했다.

운곡특화농공단지는 총사업비 264억 원을 투입해 25필지의 산업용지와 공공폐수처리 시설 등 전체 개발 면적 182,590㎡의 규모로 2025년 준공 예정이다.

곡성군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식료품과 전기전자 제조업 분야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분양을 추진한다. 유망기업을 유치하여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곡성=양혜영기자

화순팜, 연말 감사 이벤트...6100만여 원 매출 달성

3주간 판매액 지난 한 해 총 매출액 웃돌아...로컬푸드 연계 주효

화순군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화순팜'이 3주간 진행된 연말 특별행사에서 6100만여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이번 행사에는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쌈골수 ▲사골곰탕 ▲소금 등 지역에서 생산되는 200여 개 농수특산물을 최대 20%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 소비자의 눈길을 끌었다.

화순팜의 특별행사 기간 누적 판매액은 6100만여 원이다. 지난해 화순팜 총 매출액인 5000만 원을 웃도는 금액으로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10만 원 이상 구매 회원에게 증정하기 위해 준비한 텀블러도 빠르게 소진되며 그 인기를 실감케 했다.

군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화순팜 활성화를 위한 로컬푸드 직매장과 연계가 주효했다는 반응이다. 화순에서 생산되는 질 좋은 농수특산물의 저렴한 판매가 소비자의 큰 반응을 이끌어 낸 걸로 보인다.

화순군 관계자는 "올해 큰 관심과 사랑을 보내준 소비자들에게 보답하고자 마련한 이번 행사를 통해 화순팜이 더 많이 알려졌기를 바란다"며 "내년에도 화순팜 시스템 개편 등 다양한 시도와 우리 군의 우수 농수특산물 특산 행사를 계속해 믿고 찾을 수 있는 화순팜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기자

구례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사용단체 조합원 모집

구례군은 농산물 가공 창업 활성화를 위해 사용단체 신규 조합원을 오는 1월 3일부터 1월 9일까지 모집한다.

신청대상은 구례군에서 시행한 농산물 가공 창업교육 이수한 사람으로 △구례군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 목적에 동의한 사람 △구

례군 농산물을 활용하여 가공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한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사용단체 조합원은 별도의 설비 투자 없이 가공센터를 이용하여 농산물을 가공하여 판매할 수 있다.

구례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는 세척, 추출,

작즙, 여과, 분쇄, 분말, 포장 등을 할 수 있는 55종 78대의 가공장비를 보유 하고 있으며, 2020년 HACCP 인증을 받아 54명의 사용단체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상품화하고 있다.

조합원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군 농업기술센터로 방문접수하며, 관련 자세한 사항은 ☎780-2569로 문의 하면 된다.

구례=박진호기자

기업시민,
함께 미래가 도다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POSCO
포스코SPS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엔텍

포스코건설
포스코O&M

포스코케미칼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에너지
포스코티마일

포스코ICT
포스코A&C

포스코광판